

광주시, 어린이집 안전대책 적극 펼친다

공기청정기 30만원까지 지원 3월말까지 구청서 신청 접수 LPG 통학차량 전환 사업도

광주시가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광주시는 27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에는 1240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책은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섞여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로부터 신체 발달 단계의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

올해 광주시 어린이 안전시책



통학차량 동작감지 센서 설치 지원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 지원

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3월말까지이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후 영수증과 설치 후 사진을 첨부해 소재지 구청에 신청하면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현원이 50명을 초과한 어린

이집은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광주시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과 여름철에 통학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중인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동작감지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래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8년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 씩 총 4억5000만원을

투입해 9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차량이 해당된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년저감장치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28일 시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하고, 오는 3월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등을 첨부해 시 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추억의 충장축제' 퍼레이드.

(광주시 동구 제공)

'충장축제' 3년 연속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매년 광주시 동구에서 열리고 있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전국 1000여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관광 ▲경제 ▲예술·전통 등 4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충장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콘텐츠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받게 됐다.

지난해 열린 '제14회 추억의 충장축

제'는 기존의 7080문화에 대중문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90세대의 문화를 더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외연을 확장했다.

문화예술 비중을 크게 높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시도했으며 관람객 중심의 축제를 구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충장로,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자살예방센터 '24시간 치료가능' 병원 3월부터 운영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신일선·전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을 시범적으로 3월부터 운영한다.

'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은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대상자 발생시 평일 야간·휴일 입원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시의 자살 사망자는 339명(인구 십만명당 23.2명)이며 광주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도 1200여명(2017년 자살예방센터 자료)에 달한다.

이에 광주시는 2013년부터 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1577-0199)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자살예방센터에서는 최근 광주미래병원, 해피부 병원 등과 '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자살예방센터는 365일 24시간 치료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은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 시민을



광주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지역 병원과 '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자살예방센터 제공)

치료한다.

신일선 센터장은 “올해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광주시민을 위한 사각 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중소기업 살리기 15억원 투입

'뉴 기업사랑 948지원' 종합계획 추진

남의 날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분야별 11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체 현장방문 활동 강화', '발로 뛰는 기업애로 해결단 운영' 등 현장중심 기업소통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식재산 관리와 지원',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등 기술·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장 노동권익상담소, 찾아가는 노동학교·인권강좌 실시 등 근로자 복지지원 및 기업맞춤형 교육에 나서며,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각종 규제 발굴·완화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촌산단 주변 LED 보안등 유지보수, 보도블럭 정

리 및 도로포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업 육성을 위해 드론·3D프린터 등 최신 ICT 기기를 활용한 핵심 기술 체험 및 이용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체의 대응전략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 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시가 선정한 명품중소기업 총 100개 기업 중 북구 중소기업이 47개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북구는 “2018 뉴 기업사랑 948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뉴 기업사랑 948'은 ▲현장중심 기업소통 강화 ▲중소기업 기술·경영활동 지원 ▲기업체 근로자 복지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업 육성 등 9대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본촌산단, 첨단1·2지구 개발에 이은 첨단3지구 개발을 계기로 제2의 기업사랑운동을 펼친다.

총 사업비 15억1000여만원을 투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만

해마다 악취 민원 증가...광주시 중점 관리

감시반 운영·저감기술 지원

광주시의 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가 '악취줄이기 종합관리대책'을 펼친다.

27일 현재 그동안 광주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4년 218건 ▲2015년 227건 ▲2016년 410건 ▲2017년 49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체 악취 민원 건수 가운데 47%가 하남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 대책으로 ▲악취중점관리사업장 특별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방지협약체 운영 ▲민·관 합동 악취감시반 운영 ▲취약지역 연중 악취모니터링 등을 마련했다.

또 하남산단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연 2회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한 악취배출사업장 5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점검, 기술지원,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과거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1개에 대해

서는 관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기업체,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하고 있는 악취방지협의체를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악취 민원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악취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암모니아 등 22개 악취지정물질 악취오염도 감사를 매월 실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3곳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등 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악취 민원이 야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평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포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